

코오롱, 관절염 치료제 임상시험

티슈진 개발 티슈진-C 대상 ... 뼈 · 신경질환 치료제도 개발단계

코오롱그룹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슈진이 세계 최초로 타가 치료세포를 이용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<티슈진-C>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청(FDA)에 임상허가를 신청했다.

티슈진-C는 환자 연골세포와 동일한 세포를 타인에게 채취한 후 연골세포 재생을 돕는 TGF- β 1 유전자를 삽입해 만들어진다.

코오롱 관계자는 7월4일 “미국 FDA에 이어 8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9월에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코오롱그룹은 티슈진 지분의 50%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.

코오롱은 “쥐, 토끼, 산양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이미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라며, 동물실험에서 무릎연골을 제거한 후 티슈진-C를 주입한 결과 6주 후 제거된 연골이 완전히 재생되는 것을 관찰했다”고 주장했다.

티슈진-C는 2008년 본격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공장이 건설되는 만큼 한국이 생산거점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.

세계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티슈진은 티슈진-C와 함께 손상된 뼈 치료제인 티슈진-B와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티슈진-N도 개발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7/06>